

아리울의 군산

편집 군산중앙여고

유현비

발행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전화 063-443-8283 | 팩스 063-443-8284 | http://museum.gunsan.go.kr | http://mum.gunsan.go.kr


 체험기사

우리 땅, 그들만의 축제



- 전시제목 : 8.15 특별전 "우리 땅, 그들만의 축제"
- 전시기간 : 8.13(월) ~ 9.30(일)
- 전시장소 : 1층 복도 및 자료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엽서, 지도, 간행물 등 일제강점기 시대 군산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생활유물자료 50여 점과 1900년대 군산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20여 점이 전시되며, 일제시대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슬픈 역사의 참상을 담은 영상물도 상영된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1940년에 발행된 현존 유일본인 '군산일보'가 공개되는데 일제시대 군산의 과거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 전국 최초로 8·15 특별전을 통해 공개되는 것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945년 8월 15일, 두 나라 국민들이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한 쪽은 땅을 치며 울분을 토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기쁨을 주체 못해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바로 항복을 선포한 일본 국민과 비로소 독립을 이룬 한국 국민들이다.

1910년부터 35년간 우리의 땅에서 일본의 통치를 받으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는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이 깨닫게 되었다. 강제 징용, 조선인 위안부, 조선인 대량 학살, 각종 자원의 수탈, 조선 땅에 일본 신사 건축, 신사 참배 강요 등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일제는 군산항이 옛 조창과 조운의 기지였다는 역사에 근거하여 곡창지대의 미곡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집과 반출의 최적지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군산에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며 일본식 가옥, 신사, 상점, 동국사 등을 세우며 우리 땅위에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갔다. 이 땅의 주인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힘으로 자주독립을 이루진 못했지만 우리는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목숨을 바치며 되찾은 우리의 땅, 이제 우리의 축제를 열자.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혜영기자

아리울의 군산

발행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전화 063-443-8283 | 팩스 063-443-8284 | http://museum.gunsan.go.kr | http://mum.gunsan.go.kr

추석특집기사

chapter 1

❀ 우리의 명절 추석 ❀

☺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추석의 유래 ☺

한국 3대 명절(설, 추석, 단오)의 하나인 추석(음력 8월 15일)이 성큼 다가왔다. 양력으로 올해 추석은 오는 9월 30일인데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 한가위라고도 부른다.

추석의 유래는 신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유리왕이 신라를 6부로 나누고 왕녀 2명이 각 부를 통솔하게 하여 뜰에서 밤늦도록 베를 짜게 했다. 그리고 8월 보름이 되면 그 동안의 결과에 승부를 내려 진편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대접했는데 이를 가배라고 일컬어 추석의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를 뜻한다.

고려시대에도 추석명절을 쇠었고, 조선시대에는 구로선대 왕에게 추석제를 지낸 기록이 있다. 이렇듯 옛 부터 시작해 추석은 지금까지 전해져 우리의 고유 명절로 자리 잡았다.

군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제하기자

chapter 2

☺ 우리나라 3대 명절 추석, 전통놀이 ☺

추석에는 음식과 마음이 풍요하여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스포츠인 민속놀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강강술래 : 한가위의 잘 알려진 민속놀리로 대중들에게 친근한 놀이이다. 서로의 손에 손을 잡고 밤을 세워 둥근 달 아래서 돌고 도는 강강술래의 정확한 유래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있다.





소놀이(굿) : 소놀이굿은 한가위와 음력 정월 등 명절에 주로 놀아 지는 것으로 지방에 따라 '소먹이 놀음', '소놀이 굿', '나무쇠 놀음' 이라고 불린다. 두 사람이 멍석을 뒤집어쓰고 소를 흉내 내며 풍물패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닌다. 일행은 풍물을 치며 춤을 추고 맞이하는 집에서는 음식과 술을 대접한다. '양주소놀이굿' 과 '황해도 평산소놀이굿' 은 중요무형문화제 제70호와 제90호로 지정되어 있다

줄다리기 : 정월 대보름에 하던 대동놀이로 많은 사람이 두 개의 편으로 나눠 줄을 잡아 당겨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다. 요즘 학교나 직장 운동회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전통놀이이다. 줄다리기의 줄에는 암수가 있다. 동쪽을 숫줄, 서쪽을 암줄이라 하였고 경기에서 이긴 편은 그 해 농사가 풍작이 되고 나쁜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며 서민들은 그 해 길흉을 점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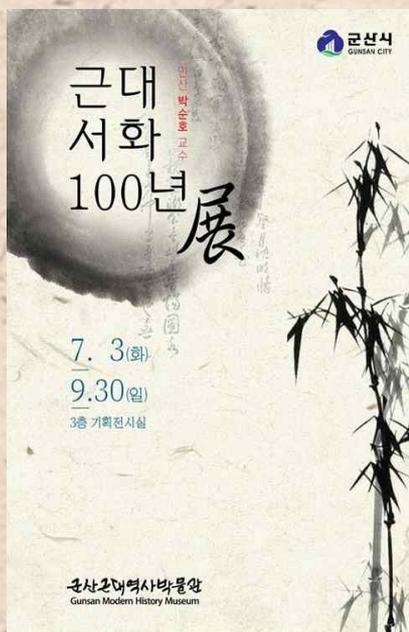


이 밖에 추석에 할 수 있는 전통놀이에는 거북놀이, 씨름, 가마싸움 등이 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화목한 추석의 분위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

군산고등학교 1학년 장성준기자

☐ 박물관전시

우리의 자부심 근대서화 100년展



군산근대역사박물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7.3(화)에서 9.30(일)까지 근대서화 100년 展이라는 주제의 특별기획전이 전시된다.

3층 기획 전시실에서 전시되는 작품들은 인산 박순호 교수가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한 서화 작품들로 1910년 국권침탈 이후 1945년 독립과 6·25전쟁 등 가장 불운했던 시절을 힘들게 살아오면서 호남을 무대로 활동했던 작가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다.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지역 서화가들의 작품을 7.3부터9.30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지척에 있는 영상 상영관에는 사군자인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림을 색칠하는 근대서화 체험공간과 영상을 보며 서화를 알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주말에 가족들과 방문해 전북 지역의 서화가 담고 있는 우수한 예술성을 직접 느껴보고 우리 문화 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한솔기자

인물특집기사



채만식,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 에두르고 휘둘러 멀리 흘러온 불이 까침내 황해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탁류 쩌 열려 콰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치 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석부려 실 까리가 클린다 ...’ - <탁류 中>

군산을 대표하는 문학인은? 하고 누군가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채만식’ 이라는 이름 석자부터 외쳐 대답할 것이다.

우리 지역은 지역 내 채만식 문학관을 건립하는 등 이 인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이는데 그에 관해 깊이 물으면 물을수록 대답하는 말끝이 흐지부지 해지기 십상이다.

오늘 이런 부끄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함께 채만식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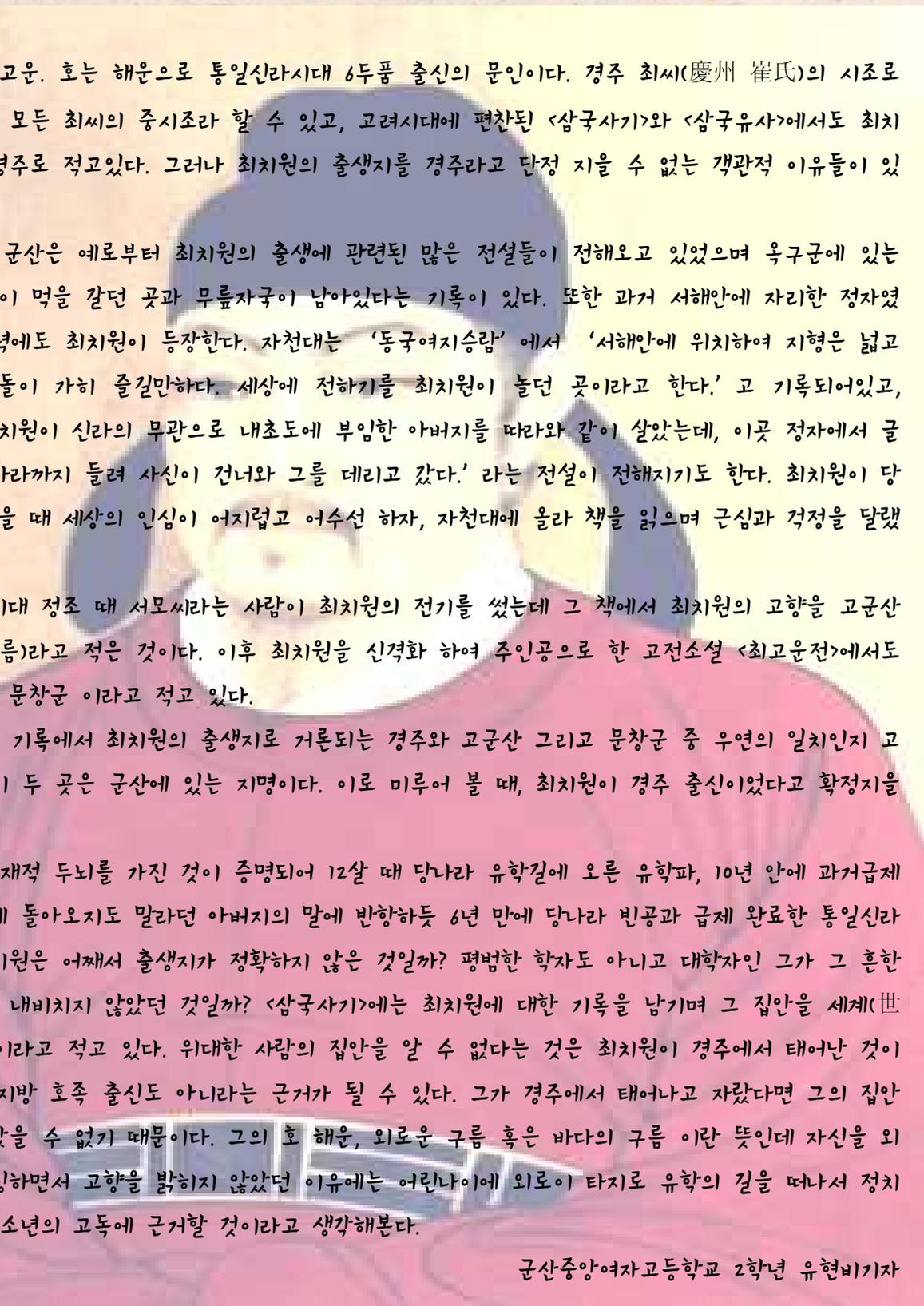
채만식[蔡萬植]의 호는 ‘백릉(白菱)’, ‘채옹(采翁)’으로 1902.06.17. 전라북도 옥구에서 태어나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 - 예과를 다니다 중퇴한 것으로 알려진 채만식은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 『개벽사』에서 잡지의 편집일, 『조선일보』 근무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경력을 쌓다가 1936년부터 전업 작가로 활약, 1924년 『조선문단』에 발표된 단편 「세 길로」로 문단에 등단한 후 꾸준한 창작활동으로 「레디메이드 인생」(1934), 「치숙」(1938), 「탁류」(1937~1938), 「태평천하」(1938) 등과 같은 많은 대표작들을 낳았다.

그의 작품세계의 특징을 풍자적, 반어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작품을 통해 당시의 현실을 반영, 비판 하면서도 풍자와 위트를 빠뜨리지 않았고 사회비평적인 문제를 희극이라는 형식을 빌려 표현하며 독자적인 작가세계를 구축해갔다.

‘채만식’ 하면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채만식의 친일행위에 대한 이야기이다. 채만식의 친일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또 다른 책인 「민족의 죄인」(1948)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회한과 반성을 자기 고백적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이 작품은 현대문학사적 관점에서 친일 부역 행위에 대한 거의 유일한 역사 반성적 형식의 소설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넓게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시간들을 함께했고 좁게는 우리 지역을 평생의 터전으로 삼으며 살아갔던 채만식, 관점에 따라 그를 존경하는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그 인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생각된다.

군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오은주기자


 인물특집기사

천재 유학자 최치원의 출생의 비밀

최치원의 자는 고운. 호는 해운으로 통일신라시대 6두품 출신의 문인이다. 경주 최씨(慶州 崔氏)의 시조로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최씨의 중시조라 할 수 있고,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도 최치원의 출생지를 경주로 적고있다. 그러나 최치원의 출생지를 경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객관적 이유들이 있다.

이유 첫 번째. 군산은 예로부터 최치원의 출생에 관련된 많은 전설들이 전해오고 있었으며 옥구군에 있는 바위에는 최치원이 먹을 갈던 곳과 무릎자국이 남아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과거 서해안에 자리한 정자였던 자천대의 내력에도 최치원이 등장한다. 자천대는 '동국여지승람'에서 '서해안에 위치하여 지형은 넓고 평평하며 샘과 돌이 가히 즐길만하다. 세상에 전하기를 최치원이 놀던 곳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있고, '소년시절의 최치원이 신라의 무관으로 내초도에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와 같이 살았는데, 이곳 정자에서 글 읽는 소리가 당나라까지 들려 사신이 건너와 그를 데리고 갔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세상의 인심이 어지럽고 어수선 하자, 자천대에 올라 책을 읽으며 근심과 걱정을 달랬다고 한다.

두 번째. 조선시대 정조 때 서모씨라는 사람이 최치원의 전기를 썼는데 그 책에서 최치원의 고향을 고군산(선유도의 옛 이름)라고 적은 것이다. 이후 최치원을 신격화 하여 주인공으로 한 고전소설 <최고운전>에서도 최치원의 고향을 문창군 이라고 적고 있다.

세 번째로는 옛 기록에서 최치원의 출생지로 거론되는 경주와 고군산 그리고 문창군 중 우연의 일치인지 고군산과 문창군 이 두 곳은 군산에 있는 지명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최치원이 경주 출신이었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다.

어릴 적부터 천재적 두뇌를 가진 것이 증명되어 12살 때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 유학파, 10년 안에 과거급제를 못하면 모국에 돌아오지도 말라던 아버지의 말에 반항하듯 6년 만에 당나라 빈공과 급제 완료한 통일신라 계의 엄친아 최치원은 어째서 출생지가 정확하지 않은 것일까? 평범한 학자도 아니고 대학자인 그가 그 혼한 출생지는 세상에 내비치지 않았던 것일까? <삼국사기>에는 최치원에 대한 기록을 남기며 그 집안을 세계(世系) 실전(失傳)이라고 적고 있다. 위대한 사람의 집안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최치원이 경주에서 태어난 것이 확실치 않으며, 지방 호족 출신도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가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그의 집안이 알려지지 않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호 해운, 외로운 구름 혹은 바다의 구름 이란 뜻인데 자신을 외로운 구름이라 칭하면서 고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에는 어린나이에 외로이 타지로 유학의 길을 떠나서 정치의 길로 뛰어든 소년의 고독에 근거할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